

대구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시다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 주일) 2016.5.8.(다해) 제1997호



효자성당 (사진 : 대구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 오늘의 전례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다.” (루카 24,51)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 하늘로 올라가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셨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며,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르셨습니다. 홍보 주일이기도 한 오늘, 교회의 홍보 사업에 더 관심을 기울이며 교회의 출판매체를 통해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 참여하도록 노력합시다.

제1독서 사도 1,1-11

제2독서 에페 1,17-23

복 음 루카 24,46-53.

입 당 송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주님은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알렐루야.

화 답 송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또는 ◎ 알렐루야.)

영성체송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이영탁 스테파노 신부 | 가톨릭신문사 서울지사 사장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프리드만과 프레이저가 했던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정집들을 방문하여 집주인에게 ‘안전운전 캠페인’이라고 소개하고 그들의 정원 앞뜰에 엄청 크고 모양새도 볼품없는 ‘안전 운전’이라는 간판을 설치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거절했고 오직 17%의 집주인들이 그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가정집들을 방문하여 이번에는 ‘안전 운전’이라는 작은 스티커를 집 앞 입구나 차량에 붙여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다시 그 집들을 찾아가 ‘안전 운전’ 간판 설치를 부탁했을 때 스티커 붙이기를 승낙했던 사람들의 55%가 간판 설치도 승낙합니다.

17%와 55%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스티커를 붙이는 사전작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자신의 마당에 커다란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런 부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큰 부탁을 하기 전에 먼저 현관에 작은 스티커를 붙여달라는 작은 부탁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별 거부감 없이 큰 부탁도 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프리드만과 프레이저의 이 실험은 우리에게 ‘문간에 발 들여놓기(Foot-in-the-door)’ 기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발 한쪽을 먼저 들여놓고 다른 발을 들여놓는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 결국 다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홍보 주일입니다.

‘홍보(弘報)’는 ‘널리 알림, 또는 그 소식이나 보도’라고 사전에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민족들에게 홍보하여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요?

‘홍보’라는 말이 불게 되면 사람들은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신앙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신앙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문화 안에서 신앙의 삶을 따르며 살아내는 것 자체가 훌륭한 신앙 홍보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소명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삶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비신앙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신앙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의 작은 삶에 함께 하며 조금씩 신앙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면서 조금씩 나의 신앙의 삶을 보여준다면 그들도 조금씩 신앙의 삶에 마음을 열 것입니다.

그렇기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신앙인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신앙인임을 드러내십시오. 성당 가는 날에만, 미사 참례 하는 날에만 신자여서는 안됩니다. 내가 신자임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일반인들도 자신이 신자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하루 24시간, 내 삶의 전체가 신자여야 하며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느님을 알리는 삶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50차 홍보 주일 담화문(요약)

커뮤니케이션과 자비의 풍요로운 만남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비의 성년을 맞이하여 커뮤니케이션과 자비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어 자신의 모든 존재와 활동의 특성인 자비를 실천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의 내용과 방법, 우리의 모든 언어와 동작은 모든 이에 대한 하느님의 연민과 온유와 용서를 표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모든 선의의 사람들이 상처 입은 관계를 치유하고 가정과 공동체의 평화와 조화를 회복시켜 주는 자비의 힘을 재발견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랜 상처와 남은 원한이 인간을 사로잡아 소통과 화해를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는 민족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자비는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말하고 대화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저는 제도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이들과 여론을 이끄는 이들이, 자기와는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이들, 또는 잘못을 저지른 이들에 대하여 말할 때 특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한 이들의 처지를 악용하여 불신과 두려움과 증오를 부채질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의인과 죄인을 철저히 구분하는 사고방식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만이 사람들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잘못을 저지른 이들의 특정한 행동 방식이 지닌 부정과 불의를 꾸짖고 타이며, 피해자들을 해방해 주고 넘어진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먼저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은 다른 이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를 이해하고 높이 평가하며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순교 또는 자기희생이 따릅니다.

붕괴와 분열과 양극화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자비와 함께하는 커뮤니케이션이 하느님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인류 형제자매들의 건강하고 자유로우며 연대를 이루는 친밀함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커피에 대한 불편한 진실

박상욱 라우렌시오 신부 | 범물본당 보좌

세계인들은 언제부터 커피를 마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커피를 마셨을까요? 13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커피는 이슬람 국가의 보호를 받아 세계에 잘 전파되지 않았습다. 하지만 십자군 전쟁 이후 유럽에 조금씩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커피를 이교도 음료라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다가 클레멘스 8세 교황님(재위 1592-1605)으로부터 커피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난 후, 유럽에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유럽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점령하고 커피를 대량 재배하면서 커피는 더욱 널리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는 1895년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 황제께서 처음 커피를 마셨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후 8.15해방과 6.25전쟁을 거치며 미군부대의 커피가 공급되면서 현재의 커피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커피를 마십니다. 유명한 브랜드의 커피를 즐겨 마시고, 길거리에서는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나 익숙한 풍경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우들도 성당의 안과 밖에서 커피를 즐겨 마십니다. 주일 교중미사 후에 신자들끼리 커피를 함께 나눠 마시는 모습은 어느 성당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본당이 커피를 판 수익금으로 사회복지와 주일학교 등의 후원금으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커피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쉽게 그리고 즐겨 마시는 커피에는 가난한 나라 아이들의 노동 착취, 거대 기업의

독점, 소매점의 가격 부풀리기, 유명 커피 브랜드의 횡포라는 불편한 진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진실은 외면한 채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공정 무역을 통한 커피를 이용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공정 무역'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언론과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한창 뜨고 있는 단어입니다. 공정 무역은 생산자와 중간거래자, 소비자 모두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형태의 새로운 무역 방식입니다. 생산자에게는 가장 싼 값이 아니라 공정한 값을 지불하고, 중간거래자나 소비자 또한 다국적기업 등의 횡포에서 벗어나 더 싼 값에 매입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당하게 제3세계의 자립을 지원하고, 환경 및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소비자 또한 공정 무역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커피가 인간의 오랜 역사와 문화 안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커피의 역사와 문화 안에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안에는 그리스도교 문화와 이교도 문화의 충돌, 유럽의 강대국과 식민지 국가의 불평등, 불공정한 무역 거래라는 커피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존재합니다. '문화 속에서 복음 읽기'라는 이번 달 글을 쓰면서, 커피 한 잔 안에 담겨 있는 불편한 진실을 바로 알고, 공정 무역을 통한 커피를 마시는 문화에 앞장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

열두 사도 이야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요한 4,11)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사도

열두 사도 중에 가장 어렸고 가장 오래 사셨으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요한 12,23.21,20)로 표현되는 요한 사도께서는 흔히 ‘사랑의 사도’로 일컬어지며 신약성경의 네 번째 복음서와 묵시록, 그리고 3편의 서간을 쓰신 복음사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반니벨리니, 「그리스도를 부축하고 있는 성모님과 사도 요한」

어부셨던 베드로와 안드레아 사도 형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 사도께서도 형님이신 야고보 사도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사도와 함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셨습니다

요한 사도께서는 예수님의 중요한 행적에 늘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아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셨을 때(마르 5,37 루카 8,51),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을 때(마태 17,1 마르 9,2 루카 9,28) 그리고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실 때(마태 26,37 마르 14,33)에도 함께 계셨으며 예수님께서 수난 당하실 때에는 십자가 형장까지 따라가 예수님의 임종을 지

킨 유일한 제자셨습니다. 특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요한 19,27) 라고 하시며 요한 사도에게 성모님을 맡기셨는데 이를 통해 자녀들의 모범을 보여주시으로써 레지오가 가장 친근하게 공경하는 성인이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빈 무덤으로 달려가셨고(요한 20,5)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베드로 사도에게 알려주시기(요한 21,7)도 하셨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는 베드로 사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시면서 초대 교회의 건설과 복음선포에 힘쓰셨는데 바오로 사도께서는 이런 요한 사도를 베드로, 야고보 사도와 함께 “교회의 기둥”이라고 부르기도(갈라 2,9) 하셨습니다.

성인께서는 에페소(지금의 터키 항구도시 이즈미르 인근)에서 활동하시다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를 받아 파트모스 섬으로 귀양살이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묵시록을 저술하시고, 황제가 사망하자 다시 에페소로 돌아와 요한복음과 요한서간을 저술하셨다고 전해집니다.

형님이신 야고보 사도께서는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 순교하신 반면에 요한 사도께서는 열두 사도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가장 오랫동안 살다가 선종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요한복음서가 예수님의 신성을 주로 기록한 것으로 인해 성인의 상징물이 독수리로 묘사되는데 신앙의 높은 경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필독**

교구장 동정

■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축복식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축복식이 4월 26일(화) 오후 2시에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대구분원 축복식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는 4월 28일(목) 오후 2시에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대구분원 신축건물을 축복하고 성전 봉헌미사를 집전하였다.



교구 100주년 기념

주교좌 범어대성당 봉헌식

일시 : 2016년 5월 22일(일) 오후 3시

장소 : 주교좌 범어대성당

※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고 혼잡이 예상 되오니
신자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주보 2000호 기념 특별 프로그램

■ 대구주보 2000호 축하특독

기간 : 2016년 4월 18일(월)~5월 15일(일)

내용 : 축하와 응원의 한 줄 메시지 (30자 이하)를 보내 주세요. 1, 500, 1000, 1979, 2000번째 도착자에게는 선물을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대구주보 홈페이지
(<http://www.daegu.jubo.or.kr>) 공지사항 참고

■ 신앙생활체험 수기 공모전

기간 : 2016년 4월 11일(월)~5월 10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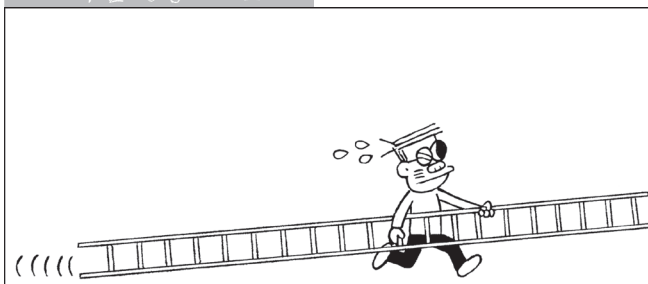
접수 : 교구 문화홍보실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jubo@dgca.or.kr

■ 대구주보 최다 보유자를 찾습니다

마감 : 2016년 5월 20일(금) 까지

접수 :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8~9

미약한 정성이지만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5월 9일(월) 10:30 범어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5월 9일(월) 11:00 월성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5월 9일(월) 11:00 황성성당	포항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5월 9일(월) 19:00 4대리구청 회의실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5월 9일(월) 11:00 신평성당	대구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5월 11일(수) 19:30 교구청 별관 302호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5월 9일(월) 11:00 죽도성당		

성소 | 피정

빈마음 성소 모임

일시: 5.15(일) 14:00

장소: 수원 본원

주최: 성빈센트트뽐자비의수녀회

문의: (010)8833-8107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

기간: 6.10(금)~12(일) 2박 3일

장소: 베네딕도 영성관(사수동)

주제: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나의 삶

대상: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은 신자

문의: 한국CLC, (02)333-9898

수지애니어그램 가족 피정

일시: 5.28(토) 9:00~22: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남대영기념관

대상: 중학생 이상(선착순 50명)

비용: 1인당 12만원, 가족 8만원

문의: 629-1117 / (010)8438-9114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피정

수사신부와 함께 걷는 전대사 제주성지

순례, 올레길오름, 트레킹, 평화·역사탐방

기간: 6.1~3 / 6.5~7 / 6.12~14

6.18~20 / 7.20~22 / 7.27~29

문의: 제주 면형의집, (02)773-1463

한비아와 함께 걷는

제주 자연순례(꽃자왈) 피정

기간: 7.7(목)~9(토)

장소: 제주 성이시돌피정의집

참가비: 30만원(항공료 제외) 선착순

문의: (064)796-9181

교육 | 모집 | 기타

성화 자수와 꽃꽂이 전시회

기간: 5.26(목) 14:00~29(일) 16:00

장소: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본원

출전: 김안나 수녀, 이매임데려사 회장

문의: (054)976-6219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가곡·성가, 통기타, 우쿨렐레, 플룻, 오

카리나, 바이올린, 성인생활영어회화,

성가반주법, 동화구연·시낭송지도자반,

천연비누·천연화장품, 텃생·유화·수채화

문의: 476-6211(지하철 1호선 교대역)

미국가톨릭사립학교 7월 여름 캠프

기간: 7.17(일)~8.7(일) 22일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 대상: 초4~중3

문의: (02)2258-8983(선착순 30명)

www.oakinternational.co.kr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일자: 6.25(토), 동부유럽 성지순례

경비: 385만원(10박 11일)

일자: 6.28(화), 이스라엘 일주

경비: 335만원(8박 9일)

문의: (02)2281-9070 / www.cttour.org

34차 요르단 이스라엘 성지순례

기간: 6.11(토)~22(수) 11박 12일

순례지: 요르단, 이스라엘

주관: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문의: (010)5607-2046

http://www.terrasanta.kr

제48차 아일랜드·영국 영어연수 설명회

초·중·고: 7.21(목)~8.11(목)

대·일반: 6.26(일)~8.7(일)

세계 학생들과 함께 연수

설명회: 5.14(토) 14:00, 남산성당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지역주민을 위한 관절염 순환교육(9차)

일시: 5.23(월) 14:00~15:3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T관 3층 테라스홀 / 문의: 650-4910

주제: 비수술적 재활치료

강사: 재활의학과 박기영 교수

꽃등대
간자발사
자연환경적식

지하철 2호선 내당역 3번 출구
예약 053)652-5432
이태도 가브리엘, 윤명미 카파리나

삼성화학건설
ISO 9001 인증

방수공사 / 페인트칠
신자 10% 할인

대표번호 1577-2279
김원(토마스) 010-5623-9001

통합의료진병원
전인병원
Comprehensive & Integrative Medicine Hospital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진료합니다
진료 과목: 일반외과, 혈액종양내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한방내과
병원장 손 기 철(베드로 다미아노) 신부
대표전화 053)670-600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입구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통전화 080-053-1000
아옥수(아네스) 010-5048-7739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윤(안젤로)
송 경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초음파 배내장, 노안교정 수술

이종화 안과

원장 전문의 이 종 화 (루 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외래교수

반야월 저탄정입구 안심1동 새마을금고 옆
☎ 053)964-2445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장 효 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백내장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야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행사 | 모임

5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5.15(일) 14:00
1~3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4대리구: 성동성당, 죽도성당
5대리구: 5대리구청, 평화성당

2016년 상반기 말씀잔치

일시: 5.28(토) 9:00~16:00
장소: 가톨릭 교육원 다동 대강당
대상: 성서모임별학생, 본당 참가 희망자
신청: 1만원(점심 및 간식 제공)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목주기도 신비 그림 전시회

기간: 5.10(화)~22(일) 10:30~19:30
장소: 동성로 바오로팔서원
주제: 목주기도 신비묵상 기도초대
화가: 이은숙(안칠라) 수녀
문의: 425-5185

교육 | 모집

5월 가나 강좌

일시: 5.15(일) 10:00~17:30(시간엄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마리아관
참가비: 1인 2만원(당일 접수)
무료주차
문의: 교구 가정담당, 250-3114

시편성가, 발성법 연수

일시: 5.8(일) 15:00 / 회비: 1만원

지도: 김정선 수녀, 박재연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한중친선협회 회원 모집

동아리(중국어 / 성경, 성가, 회화 등)
월례회(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친교)
중국 / 성지순례, 문화탐방, 여행활동
대상: 중국에 관심있는 모든 신자
문의: (010)2662-1560

대학생 해외자원봉사자 모집(몽골)

기간: 8.3(수)~12(금) / 대상: 20-28세
인원: 20명 내외 / 비용: 개인 80만원
마감: 5.18(수)
주관: 사회복지회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문의: 253-9991
<http://www.dgcaritas.or.kr>

5월 지성인을 위한 토요일신앙특강

일시: 5.21(토) 10:00~12:00
장소: 대구가톨릭대 신학대학(남산동)
주제: 교회 하느님 나라를 위한
대안 공동체

강사: 정태현(갈리시도) 신부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대구평화방송 부모교육특강

일시: 4.15(매주 금)부터 10:30
장소: 계산성당 제1교리실
주제: 청소년 교육, 행복한 미래를 꿈꾸다
강사: 현장전문가, 임석환 · 이영동 신부
문의: 대구평화방송, 251-2650 / 2654

채용 | 안내

해은학원 중등학교 사무직원 채용

접수기간: 5.4(수)~13(금)
자세한 사항은 교구홈페이지 참조
<http://daegu-archdiocese.or.kr/NEWS>
문의: 660-5161

안드레아유치원 교사(방과후) 채용

위치: 현풍 테크노폴리스 부근
문의: 611-7952 / (010)9927-4758

(주)매일상조 영업사원 채용

천주교대구대교구에서 출자하고
매일신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일상조에서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문의: 427-4400

교구 법원 공시(253-9550)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설동임(스테파니아),
김미리(프란치스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6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2016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판매가: 5천원 / 609쪽
구입: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7~9

천연염색공방 풀라빛
<http://www.풀라빛.com>
·의류 ·침구류 ·소품
·염색원단 ·감물 ·혼수품
색의 연구가 이 명숙 (루실라)
Mobile : 010-9350-4922
경북 청도군 화암읍 유등리 730번지

대구연세안과
아이디진단·렌즈삽입술 ·노안수술 ·백내장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현, 연세대의료교수 원장 박종원(소시모)
☎053)626-8881~5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대한수면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신경정신과전문의/의학박사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공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

라인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 원장 원 종 훈 (바오로)
피부 질환 아토피 | 알레르기 | 시아귀 | 티눈 | 전선 | 무좀
피부미용 여드름 | 흉터 | 기미 | 잡티 | 모공 | 보톡스 | 필러 | 비만
대명동 한영유니온빌딩 3층 (구, 달성교회)
1호선 성당역 3번출구 T.053) 651-8800

(주)한투어 성지순례전문
한투어
6월 3일 산티아고 도보순례 (출발확정) 및
성모발현지(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 발칸 성지순례 모객 중
☎ 053-427-7090
안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http://www.hantourcatholic.com>

밝은귀보청기
세계 1~5위 미국 · 덴마크 · 독일 보청기
서문점 동인점
김은연 세실리아 최준우 미카엘
☎053)257-8588 ☎053)421-8588
NAVER 밝은귀보청기 검색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H. 016-518-2223
010-8345-9479
위령회장 이주석 요셉

발아정형외과
발아플랜
무지외반증 수술 전문
지간신경통 | 족저근막염 | 평발치료 | 발목내시경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롯데캐슬 방향 500m